

“기초연구서 임상까지 大-中企 생태계… 바이오강국 꿈 실현”

文 대통령 바이오산업서 의지 표명
2025년까지 인재 4.7만명 양성
송도 등 지역별 클러스터 육성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주요 기업들이 2023년까지 약 10조원의 투자로 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 세계 최대 도시로 꼽히는 인천 송도를 찾은 가운데 “우리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 연세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류의 소망이 바이오산업에 있다. 인류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바이오산업은 언제나 새로운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두고 “경제적으로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품고 있다.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은 2030년까지 연 4%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며 “특히, 바이오와 첨단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분야 등의 새로운 시장은 연 20%를 넘는 초고속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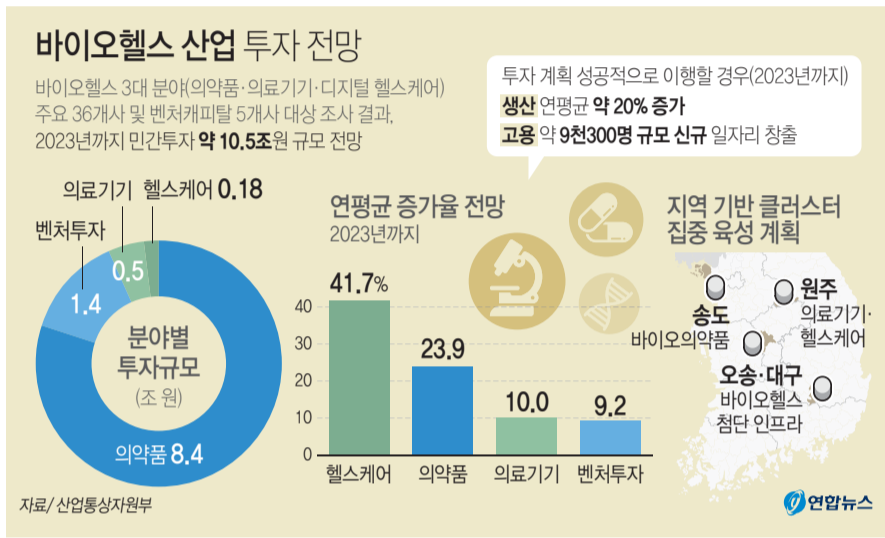
특히 문 대통령은 ▲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7000여 명의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 ▲내년도 바이오 R&D 예산 1조7000억 원 확대(올해 바이오 R&D 예산 1조3000억원) ▲송도·원주·오송·대구 등 지역별 클러스터 육성 및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의 연세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참석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온라인 기공식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오른쪽부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문재인 대통령,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계 구축 등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도 소개했다.

먼저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별 전문인력뿐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인력도 적극 육성하겠다.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설립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는 바이오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R&D 예산 확대와 관련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적극 돕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메가 펀드 등을 활용해 자금 지원을 늘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 전자·화학·에너지는 물론 사회시스템 분야까지 융합해 연구의 깊이와 폭을 더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역별 클러스터 육성 및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서 이뤄진 기초 연구가 벤처·중소기업과 만나 사업이 되고, 대기업을 만나 임상시험과 세계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의약품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 증가 ▲내수 시장 확보를 통한 국내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 발판 마련 ▲데이터 활용도 향상 및 규제 정비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창출 지원 등 전략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사람과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소신껏 미래를 향해 가자. 국민과 정부의 응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셀트리온의 다품종 생산공장 및 연구센터가 각각 기공식을 가진 데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의약품 위탁생산 1위로 도약할 것이며, 셀트리온 역시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연간 60만 리터에서 91만 리터로 1.5배 확대되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1면 ‘재계 곧 연말 인사시즌’서 계속

K-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전초기지로 ‘부상’

삼바, 세계 최대 생산기지 착공
셀트리온도 6만리터 3공장 건립
코로나 신약 위탁생산 계약 체결
GC녹십자·SK바이오도 잇단 생산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 세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과 품질을 갖춘 시설이 인정을 받은 영향이 컸다. 코로나19로 K-바이오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제4공장은 생산량 25만6000리터로 현재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인 제3공장(18만 리터)의 기록을 넘어선다. 오는 2022년 부분 생산, 2023년 전체 가동을 목표로 진행된다.

특히 제4공장은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 생산까지 한 공간 안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슈퍼플랜트’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초격차 경쟁력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글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착공식 모습. /연합뉴스

소스미스클라인(GSK)에 이어 5월에 일라이 릴리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성사, 최근 초기 물량을 전달했다. 특히 릴리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해 만든 의약품으로,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셀트리온 역시 이날 제3공장 및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건립을 본격화했다. 다품종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6만 리터 규모 바이오의약품 제3공장을 건립하고, R&D와 공정개발 및 임

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스톱’ 대규모 연구센터도 신축할 계획이다. 제3공장은 2024년 6월부터 실제 상업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완공 시 셀트리온은 연간 생산량 25만 리터급 생산시설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3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 9월부터 긴급사용승인에 대비해 치료제 생산을 진행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GC녹십자는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잇달아 파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8월에는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연이어 맺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향후 상업용 생산에도 대비하고 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해 안동 백신공장 L하우스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1억5000만 도스에서 3배 이상인 약 5억 도스까지 확대했다.

GC녹십자 역시 다국적제약사에서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국제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합의했다. 오는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백신 CMO를 담당할 계획이다. 아직 어떤 제조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얼마큼 생산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CEPI와 합의한 만큼 본계약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간 GC녹십자를 통해 5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게 목표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역량을 갖춘 건 물론 ‘K-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덕분”이라며 “아시아 시장의 전진기지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M&A, 조직개편 등 미래준비에 ‘포커스’

SK그룹도 다음달 초 사장단과 임원 인사가 예정돼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가 인사에 반영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인사폭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텔레콤 사업부부분사 추진과 최신헌 SK네트웍스 회장 비자금 의혹 수사,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합병(M&A)에 따른 인사와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도 연말 인사의 비중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에 임원인사를 발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신입사원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 연말 정기 임원인사도 연중 수시 인사로 바꾸는 등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연말 인사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의선 회장이 취임 후 ‘모빌리티 혁명’을 강조한 만큼 향후 인사에도 이같은 방향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수시채용 및 인사 시행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만큼 연말 인사는 진행되지만 변화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